



종 다 리

최 무 영

〈 한국조류보호협회 부회장 〉



흙빛깔과 같은 털 — 수직 이착륙으로 자신 보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
동다...’로 시작되는 고시조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옛이름이 노고지리였던 종다리는 봄을 알리는 ‘계절의 전령’이었고,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이 주업이던 우리나라에서 어떤 새보다도 친근하던 새였다.

참새목 종다리과의 한 종으로 몸길이 약 17cm, 몸빛은 붉은 갈색에 거무스름한 가로무늬가 있으며 뒷머리의 깃이 길어서 마치 빨처럼 보인다.

영국에서 일본까지 북위 30도 이북의 유럽과 아시아, 북미지역에 몽골종다리, 쇠종다리, 빨종다리, 왕종다리, 북방종다리, 밭종다리 등 1백 70여 종이 분포한다.

보리밭이나 밀밭 강가의 풀숲에 등지를 틀며 봄과 여름에 암수가 함께 생활하는데 땅에서는 배를 땅에 붙이고 쉬기도 하며 모래 목욕을 하기도 한다.

4~7월에 회백색의 얼룩얼룩한 알을 3~6개 낳아 품은지 11~12일

만에 부화하며, 부화된지 9~10일 만에 등지를 떠나는 만성성이다.

이처럼 부화기간이 짧고 성장이 빠른 까닭은 나무 위와는 달리 땅 위에서의 생활은 생명을 노리는 포식자가 많아 육아에 오랜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 종다리



▼ 불종다리



그러나 자연은 땅 위에 많은 포식자를 둔 대신 적절한 자위능력을 부여하여 균형을 도모하였으니 은폐색(Cryptic Colour)과 웅크리는(Crouch)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종다리 새끼들은 서식지 주위의 흙빛깔과 닮은 색깔을 하고 태어나 어미로부터 빠르르빠르르 또는 카아카아, 쭈루쭈루 하는 경고음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땅 위에 잔뜩 웅크려 사냥하는 포식자의 눈을 피한다.

등지를 떠난 새끼 종다리에 주어진 또 하나의 자위 능력은 영국 공군의 주력기인 해리어 전투기 같은 수직 이착륙 기술이다.

땅 위에서의 생활은 도음 단기에 소요되는 단 1~2초의 짧은 시간도 허용치 않기 때문에 수직으로 날아오르는 비행술은 종다리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생존 기술이 된다.

어쨌거나 날개를 천천히 퍼덕이면서 수직으로 떠올라 까마득한 창공에서 “지이지크 지이지크 류우류우류 지이지크 류우류우” 또는 “비이즐 지이지프 지이지프 지이지프”하고 노래하는 종달새의 지저귀음은 아

름답기 그지없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1월부터 들을 수 있는 종다리의 노래는 예로부터 시인들의 시구 속에 자주 등장할 만큼 매력적인데 대부분 암컷을 부르기 위해 노래하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세력권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저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하늘에서 잘 운다고 해서 '구천자(叫天子)'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소박한 외모에 비해 목소리는 아름다워

종다리의 노래는 왜 아름다울까. 앞에서 종다리의 노래가 다른 새에게 자기 영역을 알리고,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기능을 가진다고 썼지만 순전히 그 목적뿐이라면 그렇게 아름다운 가락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역시 그 노래에는 짝지을 암컷을 부르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을터이다.



▶ 종다리의 둥지

어쩌면 종다리들은 겉모양이 화려하지 못해 인기를 끌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라도 아름다워야 자기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 피눈물 나는 수련 끝에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 머릿속에 든 것은 쥐뿔도 없으면서 집치장, 옷치장, 성형 수술에 여념이 없는 인간들의 걸치장 버릇에 생각이 미친다.

오래전 개밭이 얼추 끝나서 국세청의 '투기우려 지역'에서 해제된 강남에 한창 뭉치돈이 굴러다닐 때의 일이다.

동네 서점에 한 촌로가 들어와 다짜고짜 줄자를 들이대고 서가를 찼다. 느닷없는 손님의 행동에 놀란 주인이 까닭을 물었다.

촌로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보이며 '높이 몇 자 길이 몇 자의 책장 몇개를 채울 만한 분량의 책을 살테니 아무 책이나 돈 걱정 말고 싼고 따라나서라.'는 것이었다.

황재를 만난 서점 주인이 트럭으로 한 대 분이나 되는 책을 가져다 진열해주고 있는데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너도나도 똑같은 주문을 해 오는 바람에 서점 주인은 금시 발복으로 떼부자가 됐다.

미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던 시절의 얘기인데 그 당시 강남 구역을 맡아 빛나는 공전의 판매 기록을 세운 한 세일즈맨은 자신의 성공비결을 다음과 같이 털어 놓았었다.

“우선 돈푼꺼나 쥐었지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을 골라 무조건 쳐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은 소용없어요. 그저 누구 누구가 이 책을 샀다고 알만한 사람 이름을 들먹인 다음 선생님(사장님이 아니라) 같은 분이 아직 이 책이 없으신대서야 말이 되냐고 한마디 하면 즉시 OK예요. 덕분에 장사는 잘 했지만 읽을 줄도 모르는 책을 신주단지처럼 모셔두기 위해 엄청난 거금을 들여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등치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고...”



▲ 브리태니커

물론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다. 지금의 강남 사람들은 똥장군을 지고 논틀 받틀을 해매던 원주민 줄부들도 아니고, 따라서 브리태니커를

사치품으로 모실 만큼 청맹과니들도 아니지만 그 대신 동그라미가 한 두 개는 더 붙은 비싼 옷을 입어야 직성이 풀리고 눈꺼풀, 콧날 광대뼈를 가릴 것 없이 채고 높이고 깎아 내려야 안심이 되는 고약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다.

농약 대량 살포로 떼죽음..., 공해 강산 표본

신설동과 창신동 일대에는 가내 수공업 규모의 피복 공장이 여러개 있다. 거기서 만드는 가죽 스커트는 재료비와 인건비, 업주의 이윤까지 합쳐 한 장당 5만원 남짓한 가격에 납품되는데 그 물건이 로데오 거리에 가면 당장 동그라미 하나가 더 올라 붙는다.

터무니없는 폭리를 따지는 세무원의 추궁에 주인은 눈썹 한 올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이건 약합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려 팔 수도 있으니까요.”

이쯤되면 자로 재어 책을 사간 70년대의 강남 사람들이나 5만 원짜리 스커트를 50만원에 사 입는 요즘 강남 사람들이나 머릿속이 비기로 치면 난형 난제에 오십보 백보다.

객적은 얘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우리나라 전역에 번식하는 흔한 텃새라던 종다리도 다른 희귀조의 경우처럼 요즘은 보기 드물어진 새가 되고 말았다.

이 땅에서 보리밭과 밀밭이 사라지고, 살충제의 과다 사용으로 많은 종다리들이 죽어간 탓이다.

1958년, 미국에서는 종다리들이 DDT에 오염된 지렁이를 잡아먹고 살충제 중독의 전형적 증상인 평형감각의 상실, 경련, 발작 등을 일으

키다가 죽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 무렵 미국은 자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느릅나무를 질병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에이커당 23파운드 가량의 살충제를 봄과 여름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있었다.

나뭇잎과 껍질에 얇은 막처럼 덮여 있는 살충제의 독성은 비가 와도 씻겨지지 않고 있다가 가을에 땅에 떨어져 쌓이는데 나뭇잎의 토양화 과정을 돕는 지렁이의 체내에 살충제의 유독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먹은 종다리들의 80~90%가 절멸하고 만 것이었다.

처음에 종다리들의 돌연한 죽음이 신경계의 질병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일리노이주 자연조사국의 로이 베이커 박사에 의해 그 원인이 밝혀졌다.

베이커 박사는 지렁이의 소화기관, 혈관, 신경, 체벽에 DDT가 잔류하고 있음을 해부를 통해 밝혀 내고, 큰지렁이 11마리에 잔류된 DDT로 한 마리의 종다리를 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지난 50년 동안 살충제 사용량이 10배로 늘어난 미국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1967년에는 1천 5백 77t이던 농약사용량이 불과 25년 뒤인 1992년에 2만 7천톤을 넘어서서 사용량 증가는 차치하고 단위 면적당으로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저명한 여류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 그의 예언적 저서 '침묵의 봄'에서 토로한 불안감이 새삼스런 질문으로 떠오른다.

봄이 와도 종다리 지저귀지 않는 삭막한 이 강산, 금수강산인가, 공해 강산인가. ♪